

01 교회소식

성경의 기적을 입증하는 의사들

의학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입증하는 세계 의사들의 모임 WCDN 제9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소식.

02 생명의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나엘과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03 기획특집

대화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마음만으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3가지 대화 패턴을 통해 멋지고 깔끔한 대화 플랜을 작성해 보자.

04 간증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 다나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응답받은 정정순 집사와 이재록 목사의 자서를 통해 변화를 체험한 호주 신디아 성도의 간증.

# 만민뉴스

제535호 2012년 6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37개국 의사 한자리에 모여 영성과 의학 다루다

### WCDN 제9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



아프리카 케냐에서 개최된 WCDN 제9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는 37개국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8건의 치료 사례 발표와 다양한 특강 순서는 의학적 지식의 틀을 깨고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 됐다.

지난 5월 25일과 26일,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주최 '제9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케냐 나이로비 사파리 호텔에서 개최됐다.

37개국에서 400여 명의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25일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이날 WCDN 이사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통해 널리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기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회장 채윤석 박사는 개회사에서 WCDN 설립 배경과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지포라 은구미 박사는 "이곳에서는 환자가 처방을 받아도 약을 구하기 어렵지만, 의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면 믿음도 심어줄 수 있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독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우리 교회 정구영 목사는 기조 강연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의 축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의사들의 영성을 일깨웠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와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 치료받은 4건의 사례와 해외에서 보내온 사례 4건이 의학 자료와 함께 발표됐다.

울산의대 김준성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이

재록 목사 기도를 받고 시력이 회복된 사례를 발표했으며, 양창규 원장(영상의학과)이 유방암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케냐타 국립병원 소아과 의사 에디스 오팔라 박사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정명호 목사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하반신 마비를 치료받아 곧바로 휠체어에서 일어난 사례를 발표했다. 여상훈 WCDN 총무는 루푸스에 걸려 치료하던 중 약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과 폐가 정지되기 직전까지 갔던 태국의 로사린(여, 16)이 GCN 방송에 나오는 이재록 목사 기도를 받고 살아난 사례를 발표했다.

의학적 도움 없이 단지 기도를 통해 치료된 사례들이 발표될 때마다 의사들은 의학적인 지식의 틀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과 전지전능하심에 놀라워했다.

이 외에 인도에서 온 브린다 벤크라만 박사가 18년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수술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중년 여성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조직위원장 지포라 은구미 박사는 들소 뿔에 허벅지를 받혀 거동하지 못하다가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아프리카 여인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엘리오 코라딘 박사가 자궁암 치료 사례를, 미국 알만도 피네다 박사가 위막성 결장염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각 사례가 발표된 후에는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치료받은 주인공이 직

접 참석할 경우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의사들의 의학과 영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특강도 발표됐다.

정명호 목사(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는 폐회사를 통해 "현재 의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말씀 무장에 힘쓸 것을 권면했다.

미국에서 TV 방송사를 운영하는 바실리 보이토비치 목사는 "해마다 WCDN 콘퍼런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 참석한 의사들이 매일 환자를 진료 하면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WCDN (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은 초교파 기독의사들 모임으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매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하나님 권능에 의한 치료 사례와 기독의사로서 의무와 소명에 관련한 기조강연을 통해 교제와 우의를 다지며 발전하고 있다. 내년에는 멕시코에서 콘퍼런스를 가질 예정이다.



- ① 이사장 이재록 목사 영상 메시지
- ② 찬양하며 기뻐하는 참석자들
- ③ 케냐 콘퍼런스 조직위원장 지포라 은구미 박사
- ④ WCDN 회장 채윤석 박사
- ⑤ 공연을 담당할 크리스탈싱어즈



당회장 이재록 목사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6~18)

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 다(단 3:1~7).

그런데 관원들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 로 잡혀와 관직에 오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위기 에서도 우상 앞에 결코 절을 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 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 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 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 서”라고 고백합니다(단 3:17~18).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시지 않 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마음이었습니 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 구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온전한 신뢰가 있었지요.

설령 목숨을 잃을지라도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자 심히 분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 불 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단 3:19~23).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섭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 나온 것입니다. 이를 지켜 본 왕은 너무 놀라 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을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단 3:28~30).

이처럼 아무 잘못 없이 시험이 왔다면 이 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 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줄 아 셴기에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더욱 크게 영광 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 2. 생명을 달라 하셔도 가까이 줄 수 있는 신앙

혹여 응답받을 문제가 있는데, 정작 자신 의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요행만 바라지는

않았는지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먼저 주 저앉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걸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 니다” 합니다. 가령 사업이 어려우면 “회사 만 잘되면 더 많이 하나님께 예물을 심고 열 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지요. 이 사람은 먼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 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로, 물질 로, 예배로 심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때가 돼 거둘 수 있지요.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 다. “하나님 내 병 낫게 해 주시면 그때는 봉 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할게요” 하지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 병이 왔는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이 렇게라도 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영으 로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가 나와야 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건부적 신앙이 아 니라 목숨을 달라 하셔도 가까이 줄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 답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 하신 뜻이 있겠지” 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 실지라도’의 신앙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하시니 죽음도 면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 어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 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믿음으 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한 가 지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설령 아무 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감사할 수 있 어야 합니다.

### 3.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죽는 날까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 다. 오히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 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 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 했습니다(행 20:24).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아가보’라는 선 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 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 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울은 “나는 주 예 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 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지 요. 결코 목숨이 두려워 믿음이 흔들리거나 타협지 않았습니 다.

고린도후서 11:23~27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의 고백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수 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 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못하고 주리 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조건 없는 신앙으로 오직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 서 옥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합니다(살전 5:16~18). 현실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 히며 쫓겨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전에는 주 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자가 이제는 핍박받 는 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했지요. 또한 어 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주님 피 값을 찾아드릴까 힘을 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기뻐하 고 감사하셨는지요? 믿음의 분을 보여 준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도 바울처럼 꼭 승리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조건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상대 유익을 구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상대가 무 엇을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식 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에도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 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조건부로 사 랑합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한다’ 할 수 있 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 말할 수 있겠습 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기뻐하시 는 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 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 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예식에 방백과 수령 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 사와 각 도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 모았습 니다. 그리고는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지요.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로 극렬히 타



- 교회 주소는 길**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마다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왕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소통을 위한 대화 전략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 말한다 해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 것인가,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대화에도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획 없이 즉흥적인 감정에 치우쳐 대화하다 보면 정작 핵심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말에 실수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리드할 수 있다. 서로 공감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3가지 대화 패턴을 활용해 멋지고 깔끔한 대화 플랜을 작성해 보자.

## 1. 대화를 유지하려면 상보(相補)교류 하라

상보교류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무갈등 대화법이다. 상대가 보내는 메시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마음에 맞춰 상대가 기대하는 대로 반응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가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할 때 기쁘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이유가 먼저 떠오르기보다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상보교류의 핵심이다.

탁구를 칠 때, 그 경기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가 받아치기 쉽게 공을 안정적으로 줄 것이다. 대화도 마찬가지이다. 대화를 유지하려면 상대와 주고받는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 곧 서로가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원만한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면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쓰레기봉투가 짝 찼네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쓰레기를 버려달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한 남편이 “그러게, 쓰레기봉투가 짝 찼네.”라고 대답만 하고 만다면 그는 아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돌려서 이면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남편에게 “여보,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미안한데 쓰레기봉투 좀 버려주세요?”라고 말이다.

만일 아내의 이면교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분 좋게 쓰레기를 버려준다면 그 남편은 아내에게 신뢰를 얻고 행복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면의 메시지를 읽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기에 대화능력을 향상하려면 이면교류는 지양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 3. 대화를 중단하려면 교차(交差)교류 하라

교차교류란 서로의 감정이 엇갈리게 되는 갈등구조의 대화법이다. 이는 상대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상보교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가 질문하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더 이상의 도움을 주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마음에 균형이 깨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하고 상대는 마음 문을 닫는다. 반드시 해야 할 때만 어렵게 말할 뿐이다.

이런 사람과는 당연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에서 교차교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유익하고 건설적이지 않은 대화가 오고가는 자리라면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TIP

#### ◆ 밀러링(Mirroring) 효과를 이용한 BMW

대화 시 공감적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능숙하지 못할까? 이는 아마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연습을 위해 거울 앞에 서보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떠한가. 웃고 있는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니 “안녕하세요.”라고 따라 하는가? 거울 속의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을 동일하게 따라 할 것이다.

이처럼 ‘밀러링 효과’란 상대방의 긍정적인 느낌, 행동, 말투 등을 맞추기 위해 따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동작과 말을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장난치는 느낌이 들어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줄 수 있다. 상대방과 같은 생각 같은 느낌임을 대화 중간 중간에 온몸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은 나하고 비슷하네. 통하네. 그럼 대화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마음 문을 열고 목적인 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즉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무엇을 따라하면 좋을까? 바로 BMW이다. 보디랭귀지(Body Language)의 B, 분위기(Mood)의 M, 말하는 방법(Words)의 W로 대화 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명품 대화를 구사할 수 있다.

#### - BMW -

- ✦ **보디랭귀지 (Body Language)**  
자세, 몸놀림, 손놀림, 복장, 태도, 동작, 표정, 호흡, 앉은 자세, 발의 위치 등
- ✦ **분위기 (Mood)**  
희비, 명랑, 조용, 열정, 필링, 신념, 가치관 등
- ✦ **말하는 방법 (Words)**  
스피드, 고저, 표현, 목소리 크기, 전문용어, 문장의 장단, 어조, 맞장구 등

### 상보교류를 잘하려면

- ✦ 일상에서의 대화는 상보에서 시작해 상보로 끝나도록 노력한다.
- ✦ 상대가 말하려는 것과 말하는 것을 경청한다.
- ✦ 상대 말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솔직하게 되돌려 준다.
- ✦ 우선 OK-OK 감정으로 상대 말을 긍정한다.
- ✦ 상대 말에 기분 좋게 대답하고, 말한 내용을 반복한다.  
예) “내일 오후 2시에 회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 “그럼 내일 오후 2시, 회의시간에 뵙겠습니다.”(반복)

## 2. 말 따로, 마음 따로 아리송한 이면(裏面)교류는 지양하라

이면교류란 직접적 메시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의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화법이다. 여기에 서는 겉으로 표현되는 말과 속마음에 있는 숨겨진 의도

최선숙 집사

주요경력  
고려대 사회교육원 '직장생활과 예절' 교수  
상성물산 '캥거루서비스 아카데미' 전임강사  
신세계백화점 '헬로서비스 아카데미' 전임강사  
제일모직 '토파즈 교육센터' 전임강사 등  
현재 만민중앙교회 비서실 근무



June 6  
GCN Programming Guide

**감사함이 넘치는 6월!**

“천국을 소망하며 성결로 나아가는 시간,  
GCN이 준비한 충만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세요.”

**주요 프로그램**

이재록 목사의 '천국 20~24'  
이수진 목사 초청 '2012 페루 순수건 집회 특집'  
뮤직 다크 '믿음으로 걸어온 길'  
사람이 다스려야 할 물의 행실 3~6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가세는 점점 기울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접이나 굿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살아갈 소망이 끊어졌으나

성장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 언니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매달리니 마음이 돌아섰지요. 결혼 후 잘 해주겠다고 말과 달리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고 남편 또한 돌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에게 신기(神氣)까지 있어 괴로움은 가중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기대는 어긋났으며, 남편은 외도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자녀 셋을 키워야 하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지요. 아무 희망도 없었던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일까요?

한 분이 '만민뉴스'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살뜰히 저희 가정을 보살펴주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정순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로 저는 1996년 4월 21일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B형 간염이 심해져 간경화로 발전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 새 삶을 얻고

등록한 지 얼마 있지 않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해 B형 간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몇 개월 후에는 전신 류마티스 관절

염도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헤어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4년 전에 치료받은 협심증이 재발됐습니다. 호흡 곤란과 심한 가슴통증을 느꼈지만 이런



정정순 집사 (2대대 13교구)

와중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단비 같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약 기도회'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치료받으리라는 결심과 함께 믿음이 와서 2월부터 42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4월 9일부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작정해 기도하니 감동이 달랐습니다. 왜 협심증이 재발됐는지 생각해 보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 마음 때문임을 깨닫고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던지 눈물조차 메말랐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화개의 은혜를 주셨지요.

그 후 협심증 증세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받기 3일 전의 일입니다. 꿈을 꿔는데 제 몸에서 까만 것이 빠져나가며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4월 10일 큰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한 결과, 예상대로 협심증 증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세 가지 기도제목을 모두 응답받았어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응답받고 싶습니다.

첫째는 특별 기도회 마지막 날 시상식 때 당회장님 상을 받아 당회장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 셋째는 협심증을 치료받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 세 가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마친 후, 항상 함께 기도한 윤화순 구역장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꿈에 당회장님께서 36번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여선 교회 6기관에 속해 있고 제 핸드폰 끝번호가 36번입니다. 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그 사랑이 느껴져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섬세한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디아 맥밀란 (호주 시드니)

저는 가톨릭계 학교 과학교사입니다. 2008년, 이재록 박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친구를 통해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십자가 섭리' 등 성경의 핵심을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도 사람과 같이 눈 두 개, 입 하나..., 위치도 동일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큰 은혜가 됐지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주, 태양계 등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주가 되심을 이전보다 더 쉽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먼저 하나님에 관해 말해달라고 할 정도이지요. 또한 '천국', '지옥' 저서를 통해서도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재록 박사님 저서는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잘못된 습관,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고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마약 복용으로 고통받던 남동생도 이 박사님 저서와 웹사이트를 활용해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많은 말씀을 통해 학교에서뿐 아니라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지요. 이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 제 삶은 변화됐고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재록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신민성결교회 부신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서부신민교회 부신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새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서량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3196-3927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2층)
033)261-4217, 010-7300-4217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